



현희안 선생

현희안 선생은 1914년 음월 27일에 원동면감편 해주, 와우동 갈리노 구역에서 빈농민의 가정에서 태어났다. 1925년, 8세 되는 해에 함흥 소학교에 입학하여 1929년에 소학을 나오고, 1929년 부촌니촌 초중에 입학하여 1932년에 초종을 마감한후 당시에 소왕영이라고 부르던, 한인들이 많이 살고 있던 도시, (현재에는 무북리시)에서 한인 사전에 입학하여 1935년에 무용한 성적으로 그 사전을 수료하였다. 그 당시에 한인 사전을 마감한 간부는 아주 잘 준비된 초중 교원으로 인정 받았으며 많은 소학교들의 교장, 교무주임 등 책임적 교육자로 인정되었었다.

현희안 선생은 사전을 마감한후 지리와 역사 과목을 전문 하는 교원으로 고향에서 멀지아닌 갈리노군 소재지 교당에서 1937년, 즉 원동으로 부쳐 한인들의 강제 이주 때까지 교편을 잡고 일하시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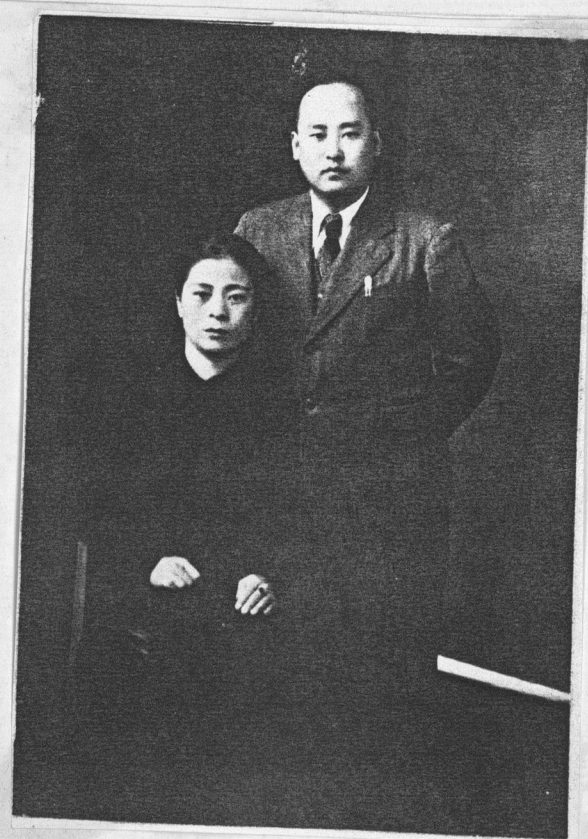
현희안 선생은 강제이주 당시에 우르벡 공화국 하슈켄트주 중부철취 구역 기로브 명칭 국영농장에 도착하시였다.

강제이주 초기에 국영농장에 도착한 한인들은 예외적 사색이 없는고로 지방 민족어 살고있는 집들에 아주 빈절것 없는 적은 살림방에서 우르베인들과 같이 살기도 하고, 또는 돈기 없는 사랑방에 노절도 없이 벼질을 띄고 살기도 하고 혹은 집근처에 호굴막을 파고 역시 벼질을 띄고, 또 뒤에 예영도 간단으로 가리운 다음 벼가 새지 않거위하며 벼질으로 가리우고극심한 고생을 하면서 겨울 나대일동안 지내었으나 살림이 되자 날씨가 따뜻하게 되자, 전방들이 다들 밭생하기 시작하였다. 장질 쟈프스가 대략 밭생하여 1938년 봄 여름 사이에 우대한 이주인들이 죽었으나 아무런 예외대책도 취하지 아니한 국가 보건사업은 아주 저급한 수준에서 치료사업으로 진행하였다. 그 때에 또 많은 여름이 돌아오자 말라리아병(황진)이 급속히 전파 되다가 하년 어린이들에게는 홍진이 돌아가는바람에 매일 십여명 사람들이 죽곤 하였다. 이렇게 한심한 형편에 봉착한 한인들은 그러도 낙심하지 않고 농사도 짓고 집을 건축하기 시작하여 보며 아이들은 학교에 다니기 시작하였다. 원풍에 있을 때 때는 전북대 한인학교에서 고려말로 아이들은 공부하였으나 강제이주당한 한인들에게서는 한국말로 공부하는것도 금지하였다. 즉 한국말로의 교육은 폐지하라는 정식 국라의 명령으로 학교들에서는 전북대 로어로 공부하게 되었다.

현하안 선생은 피로브 국영농장 교실에서 1937년 12월 부터 그해연드 할까지 지리, 역사 교원으로 일하신 다음 1938년 가을에 페르가나 시에 있는 사대 지리학부에 입학하신후 재정당으로 종교생은 하시였으나 권취선이 있는 현 선생은 그 사대 지리학부를 1942년에 수료하였다.

현희안 선생은 항상 애하계 꿈꾸고 염원하던 대학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였던바 선생이 수여받은 졸업증에는 : «상기 사대 졸업생은 국가가 인정하는 고종학교 지리-역사 교원임을 확인함» 라고 서술되어있다. 1942년에 사대를 졸업하고 가족어 살고 있는 기로부 국영농장에 돌아오니, 현안들은 국영농장을 한인 협동조합으로 개편하고, 이전까지 초중으로 있던 학교를 함생수호기 많아짐에 따라 고중으로 승급시켰다. 현선생은 연모가 달라진 자기눈에 돌아와서 인제 부처는 새 직품 지리-역사 교원겸 교무주임으로 일하시게 되었다.

현선생은 기로부 농촌에서 도는 벌써 오래전부터 일하시었으며, 교직원 전체 일동의 따듯한 인정을 받는 위신있는간 부로서 항상 협동조합 총회나 당위원회에 초청을 받아 베풀었다.



1942년에 현선생의 페르가나 사대를 졸업한 다음 다시 기로부 초 고중에서 지리-역사 교원으로 일하실시에 황웨이랑 양하고 결혼하였을 때 찍은 사진이다.

어이 찬가 하게 되었다.

1942년 신항연도가 착 시작되자, 얼마 안지나가 소련의 최고 명절인 시월혁명기념에 의하여 협동조합 당위원회는 현히안 선생을 소련공산당에 입당시켰다. 당시에 이것은 소련 간부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영예였다.

1942년 소련인민들이 가장 어렵게 지내던 조국전쟁시기였다. 전선에는 피가 흐르고, 소련의 많은 영토와 도시들은 파쇼침략자들의 발흥아태에서 신음하는 시기였다. 그러나 어서기에 고려사람들은 경치적 불신불자라고 전선에 초보하지 않고 후방건설에 동원하여 로동은 시기(연서), 후방전선이라 칭하였다. 그 당시 키로브 협동조합은 고중에는 아주 훌륭히 준비된 간부들이 일하고 있었다. 그들 중에서 차츰 북한에 나가서 많은 어려운 직부들에서 모범적으로 일하신 이윤만, 레글 들어 불러올 하자! 리훈백, 박태섭, 박훈, 강상호, 김일, 현히안, 박태준, 박일부 등 선생님들이다.



사진은 1954년에 현히안 선생이 «소베트 신보사기 편집국장»으로 재일시에 촬영한 것이다. 우로부터: 리훈백, 현히안, 김용행, 명월봉, 박계라섬, 김철우, 김영환, 장학봉 등 선생님들이 평양시에 당 중앙 전위회의 참가자로 왔던 기획이었다.

현선생이 1945년 9월에 현선생은 소련군에 초보되어 원동변강 위로실로부시 (현재 우부리시)에 도착하여 소련군 제 25군

5.
 단에 군사총역원으로 배속되어 처음 동만주 출출에 넘어갔다가 그곳에서 방향을 돌려 후릉으로 넘어간 다음 북평성 남향 청진을 지나서 시월봉봉에 평양시에 도착하게 되었으며, 2.5군단 편성 사령부에 배속되어 계속 군속 총역원으로 일하시게 되었다.



사진은 1946년 3월에 평양시 옥란봉을 일대 앞에서 현희안 선생이 자기제자들인 노어강습소 제 4조 청강생들과 같이 촬영한 것이다.

좌로부터: 알골에-리수철, 하동호, 박재홍, 현선생, 허진숙, 노재일;
 위로부터: - 리현, 리용균, 김인숙, 신재식, 김만영, 황나수, 광덕봉, 리용욱, 김낙영, 량희진, 동명석.

민전사령부 계통은 과연 광범하면서 다대 복잡하였다 이것은 소련 2.5군단 지도부가 북한 전체행정기관들을 지도하는 기관이었다. 민전사령부는 1946년에 들어서면서 소련식으로 농민들이나 지주들이나 할것없이, 전체 인민들의 호지를 몰수하여 국유화 강령을 실행하는 한편 협동화 정책을 실시하여야 하였으며, 그 뒤를 따라 5월 부처는 전체 생산수단들을 몰수하여 국유화하는 동시에 전체 산업, 상업을 함께 양타하여 지어는 사소한 개인봉사까지 국

유화하던가 협동조합화할 계획이었다. 농민이 75% 차지하고 있는 북한에서 농지문제는 과연 중대하였다. 1945년도 추확고 처치 문제는 민전사령부의 지시에 따라 삼할제로, 농민이 7할을 얻고 국가가 3할을 받는다고 하여 놓고, 국가 대신 소련군이 3할을 받아서 소련으로 쌀을 발송하는 바람에 곳곳에서 많은 노동자들이 일어나는 가운데, 국가 행정기관이 그 쌀을 받아서 국사처치에 쓰이 할 대신 소련으로 가나 보니 국가는 농민들에게서 또 다시 철부적으로 건어낼수 밖에 없었다.

북한의 90여군, 20여개 도시들에 역시 하북민전사령부들로 조직하고 각군, 군연, 행정지도자들은 반듯이 하북민전사령부 지시대로 시업하여야 하였다. 대문에 수십, 수백명의 홍역원들이 필요하였다. 소련으로 부터 북한에 나가 일하는 한인들도 많았으나, 많은 사람들은 직접 행정책임과 직무에서 일하다보니, 홍역원은 많이 부족되었다.

대문에 민전사령부는 신속하게 단기 노어 강습소들을 열어놓고 주어 홍역원 양성에 큰힘을 돌리었다. 바론 어찌에 즉 1945년 12월 중순부터 시작하여 현선생도 단기 노어 강습소 제 4조 단임조장겸 교관으로 1946년 8월 말까지 일하시었다. 이 노어 강습소를 졸업한 현선생의 제자들을 취급 후지 74년, 산업국유화 사업에서 큰 성과를 달성하고 높은 국가적 직무에 응급되어 사업하면서 현선생의 매우 훌륭한 친구로 되어있으며 많은 사업에서 혁신적 방조를 받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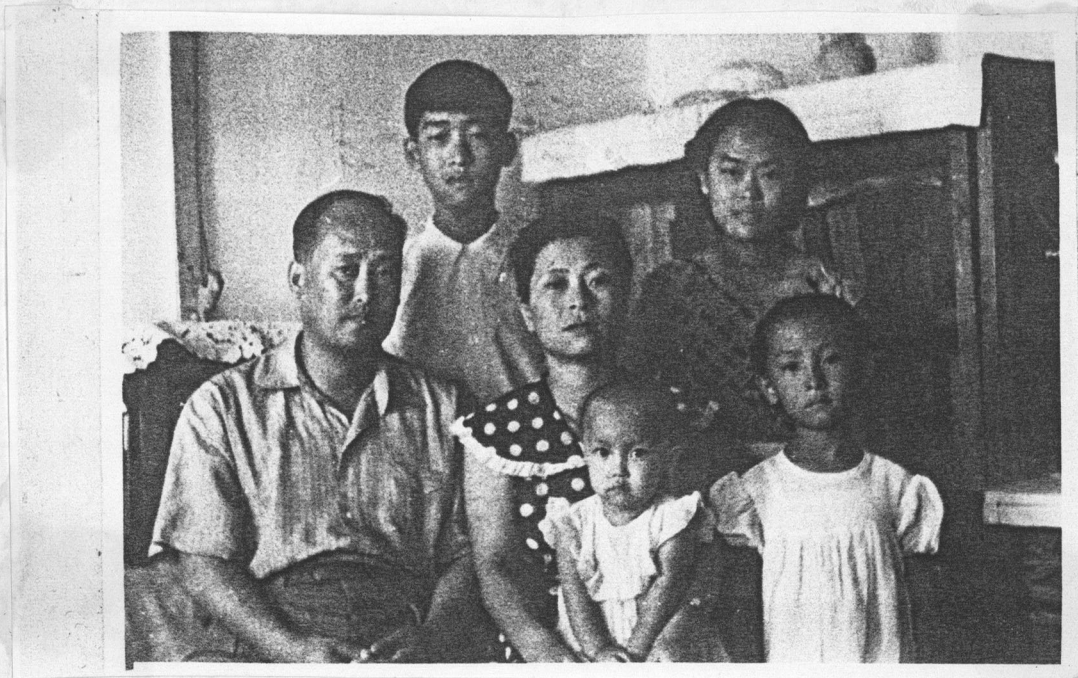


사진은 현선생이 1946년에 교관으로 제실시에 촬영한 것이다. 6

당시 북한에서 인민사령부의 지도하에 호지개혁을 성과적으로 하여 협동화 정책에서 큰성리를 달았다고 현재까지 북한은 밭에 거름을 물고 노지치나, 이 호지개혁으로 인하여 할아버지 때를 부어 상속하여온 그 호지를 배어앗긴 수많은 농민들은 남한으로 건너가 어산가족을 어득어득하여 그들의 수효는 현재 원만에 달하고 있다 말로는 성과적이라 하지만 호지개혁은 무수한 비상사고들은 밭에 내었으며 견고하고 부유하게 대대 눈으로 내다오며 살고 있던 가족들도 파산되어 남한에서 북한에서 신음하고있다. 그후 산업 국영화, 상업 국가 독점은 어리한 사실은 어쉽카하여 주었다.

현선생은 1946년 말에 흥역원 단리강습소에 농화당원이라 내각고급지도간부 학교 상급교원으로 다음 교무주임 책임에서 1951년 5월말까지 일하시였다. 동 학교는 조직항시에 약 2천 95군단 정치부의 직속으로, 학교의 사업계획과 각 과정의 강령을 반듯이 군단 정치부 부장이 비준하였으므로, 그에게 집행과정에 대하여 보고하였었다. 학교 학생수효는 300명이였으나, 그들은 공화국 내각과 당중앙 추천하여 파견하였으며, 교육 기간은 3개월이였다. 제 1기 부하 학교 교장에는 김일성 어의 부교장에 박영빈, 차후 당중앙 조직부장 겸 정치위원으로 있다가 역시 1958년에 추방되어 타유권소에 귀환하여 현재까지 90교령에 비교적 정정하게 제신다.

동 내각 직속 고급지도 간부학교는 1948년 12월 까지, 즉 노현군이 북한으로부러 철퇴하라 내각 직속으로 넘어가, 계속 조직 초시기 강령으로 교육사업은 계속하였으며 교육적 대상은 역시 북방 관리국장, 각 시 도 군 연변위원장 및 각급 당 간부들이였으며, 동쪽 산잔어 시작되기전 일어난 북어는 특별반어라고 조직하고 그에 연설군 고급정치 간부들을 파견하여 공부시켰다. 당시 이 내각 직속 고급간부학교는 동평양 사동에 주재하여 있었기 때문에 종종 사동간부학교라고도 칭하였었다.



사진은 1957년 7월 현선생이 평양을 출발하여 모소코바 유학을 떠날 당시에 찍은 가족사진이다. 사진에는, 앞에서 현선생, 사모님 황채라, 3녀 멜라, 2녀 알라, 뒷줄에 아들 베두아르드, 넬라 - 황달

사동간부학교 제 1기 졸업식은 1946년 10월 초순에 있었다. 제 1기 졸업생들은 함남 100% 고급간부들이었던바 감성부상도, 도원반위원회 위원장들, 부위원장들, 도당 위원장들 부위원장들이었던바 졸업식은 사동간부학교에서 진행되었었다. 동 졸업식에는 영예 교장 김일성이 직접 참가하여 졸업장을 수여 하여 주었으며, 김일성의 김두봉 상임위원장도 참가하시였으며, 소준총으로 쓰뜨끼 대장, 로마네키 소장, 군단 정치부장 그로보브 대좌, 정치부 선전부장 예르빌로브 중좌, 인민로 극장 최용권, 외 김일성의 보좌관 겸 총역관 문에릭, 김일성종대 부총람 백일우 등 고관들이 참가하여 졸업식을 성대히 진행 되었다.

현희안 선생은 동족상잔이 시작되어 사동학교를 언솔 하여가지고 동반 홍화에까지 후회하여 들어 갔다가 다시

북한에 귀국한후 1951년 8월부터 조선전선영 해외⁹
문화고급 협회 (북산) 기관지인 <소베트신보사기 신문
편집국장으로서 임명되어 1954년까지 일하시게 되었
으며, 1954년 8월부터 공화국 기관지인 <조선선선기
신문 책임주필로 1959년 8월까지 일하시었다.

현 허만 선생은 그 성리가 아주 온순한편이면서 모든 일을 경솔하
게 단번에 판단하나 결심하는 성격이 없었다. 현 선생을 잘 아는
친구들은 항상 말씀하시기를 현 선생은 참새보다도 더 영리한
사람이라고 일렀다. 1954년까지 <소베트신보사기에서 일하실
때에는 그 기관이 조선기관이었기 때문에, 벌써 북한에서는 당시상
검토사업이 진행되는 바깥에 각 기관들과 단체들에서 간부들이
말들끄고 있었지만 현 선생은 이유어 든든하여 뒤집을 잡고
단기면서 거러 남의 일로 구경하듯이 하면서 살았다. 그 당시에
<조선선선사기 넘어왔을 때부터는 주위 환경에 대한 고찰관
점이 전혀 달라졌으며 금일에 물론 단기는 간부들의 열심에 대해
자기가 겪은 열심과 같기도 하였다. 역시 조선 출신이며, 사동
간부학교에서 4년간이나 같이 일하였던 김동철 선생은 바빠
도없이 감옥에 들어가 목사하였다는 소식이라던가, 1957년 당시
조선 출신 간부들은 90% 이상이 안산, 처단, 랍취, 추방등으로 당
하여 아이들과 부인들이 울고 다니는것을 볼때에 자기 알길로
멀리 남다는것을 예감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현 선생은 이때에 손을 쓰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것을 결심하고 당중앙에 가서 조선서 같이 왔으면, 한기관에
서 같이 일하였으면 현직이 다양한 자리에 앉혀 계시는 당시
당 책임적 부장계 형님들이 조선으로 유학 보내달라노것을 청
들게 되었다. 요청은 해결되어 모스크바 중앙당학교에 선문
잡지학부에 입학하게 되었다. 모스크바 당학교에서 3년간 공부
한다음 1959년도에 평양에서 다시 나오라는 호출을 받게

되자 현 선생은 북한 대사관으로 향하여 북한 국력으로 거절한다는
 청원으로 제출하고 당 중앙 위원회에 운동장에서 제 1형 식량 물결로
 요청하고, 소련 최고 소비에트에 소련 국적 회복, 소련 공산당에 소련 공
 산당 회복에 대한 청원서를 제출한 결과 모든 물결은 현 선생
 의 계획대로 되고, 중앙당 학교에서의 공부 물결은 소련 공산당 중
 앙 위원회의 결정에 의하여 우르백산 중앙당 학교에 전학되
 었던 것이다. 그 결정에 따라 현 선생은 다뉴겐호에 식주와 함께
 도착하여 사택으로 분배 받고, 공부도 계속하게 되어 1963년
 에 다뉴겐호 중앙당 학교 신문학부를 우수한 성적으로 공부하여
 수료하였다. 현 선생은 이 당시에 개인적이나 가족의 모든 물결
 들어 비교적 순조롭게 해결되었으나 속 내막적으로 많은 고민을
 하면서 살아왔고, 사회주의 도상에서 완전히 이탈하여 김일성
 독재주의 체제로 넘어가며, 소련과도 중국과도 같은 행태
 에서 민족적 백색 체로에 리행되어 우선, 수만 명의 혁
 생자를 내고 있는 북한에 대하여, 조국의 흥얼이 없던 데에
 하여 속내가 매우 밀어졌으며 나날을 보내었다. 현 선생은
 1963년에 중앙당 학교를 마감하고 다뉴겐호 철란사르 구
 역 「차이카」 영화관 지배인으로 일하시다가 고혈압 병
 으로 인하여 1970년 10월 6일에 별세하시었다. 현 선생이
 별세하시후 황계라 사모님은 물리학 학자가 된 아들 에두아르트
 와 또 기타 다른 딸들의 손군들로 많이 말에 놓고 행
 복하게 지내고 있다.

현 선생은 수다한 국가적 표창들을 받았다: 북한에서 국기훈장 2급
 자위 독립훈장 2급, 조선 해방 메달을 받았으며 소련의 많은 메달들로
 수여 받았다.